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4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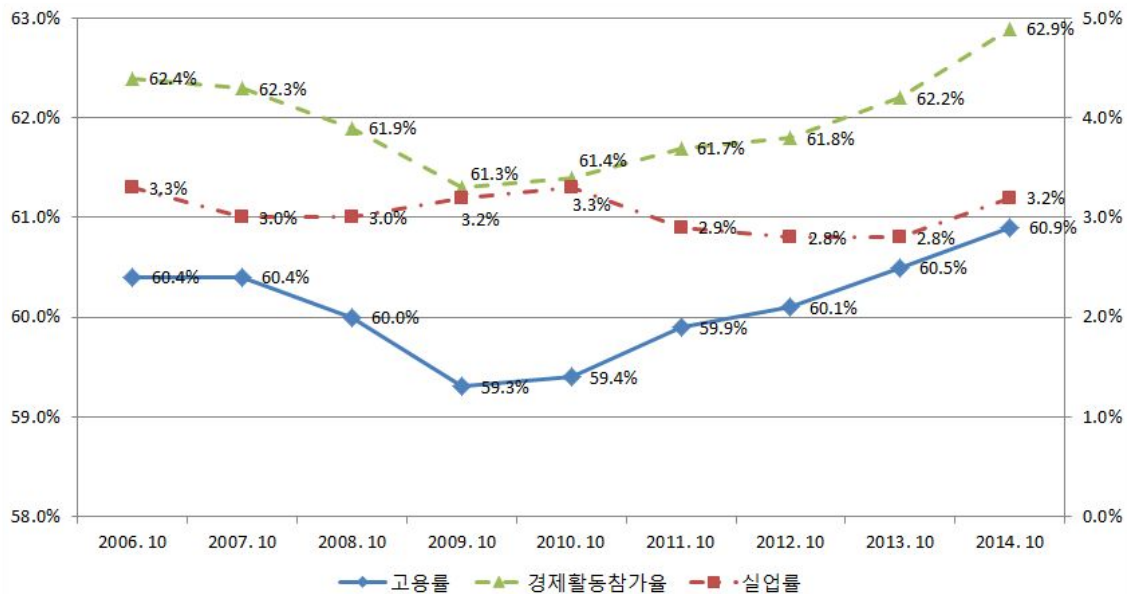
2014.11.13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4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고용률은 60.9%까지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 전반적인 고용지표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10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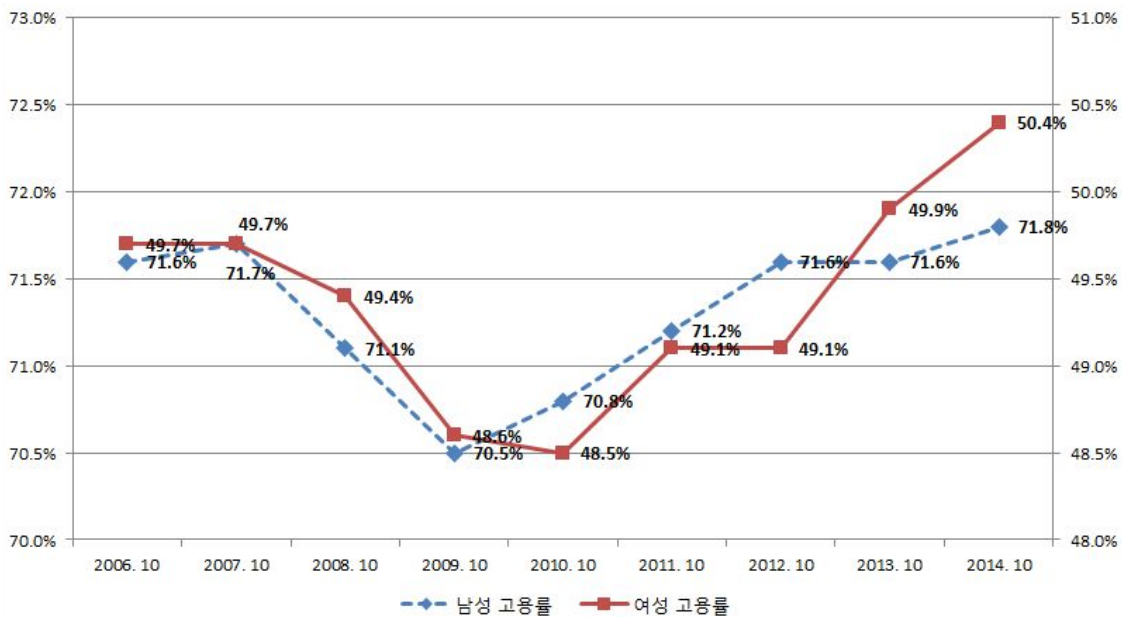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50% 이상을 유지함. 전월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큰 성별 고용률 격차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용률 개선이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성 고용률 개선은 바람직한 현상임.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 하지만 여성 고용지표 개선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러므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

그림 2. 성별 고용률 추이, 각 연도 10월 (단위 : %)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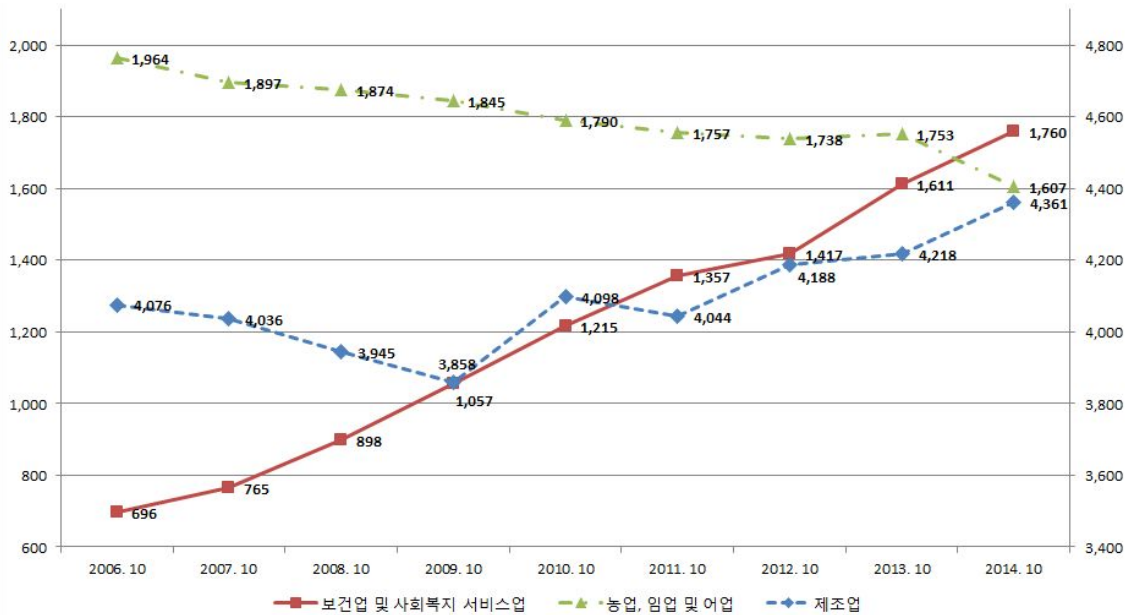
- 취업자는 2,595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만 6천 명 증가. 전년동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4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유지
-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만 9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8천명), 제조업(14만 2천 명), 도매 및 소매업(12만 9천 명), 교육서비스업(6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4만 6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 행정(-5만 2천명), 금융 및 보험업(-4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2014년 10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월 현재 176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 2007년 10월 취업자 수 76만 5천 명과 비교했을 때 7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임
-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한 것임을 감안했을 때 이후에도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됨
- 제조업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함. 2014년 10월 현재 436만 1천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10월 현재 농림어업의 종사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취업자 (단위 : 천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림어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과 50대에서는 크게 증가한 반면, 30대는 감소함
-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천명이 증가하였고, 50대 취업자는 16만 9천명 증가.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중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10월 현재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3,73만 1천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 363만 6천 명을 추월함
- 전년동월에 비해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7만 명 늘었지만,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세가 더 컸기 때문임. 30대 청년층에서는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취업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5천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 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36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4천 명, 여성은 1,046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 명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나타내는 구직단념자는 4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8천 명이나 증가하였음

새로운 고용보조지표

□ 새로운 고용보조지표 발표

- 2014년 10월 고용지표에는 기존의 고용지표와 함께 새로운 고용보조지표가 포함 되어 있음
- 실업률과 관련된 이 새로운 고용지표는 기존의 실업률 통계가 현실에서의 실업문제를 과소평가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실업률은 실업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업자로 보고 계산하고 있음. 즉, (1)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2)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3)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됨
- 이로 인해 실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구해질 경우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예를 들어, 특정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의 취업 시즌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인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경우 실업률은 낮아지게 됨. 그러므로 통계청이 기존에 발표하던 공식실업률은 현실의 실업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으며, 현실의 실업문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실업률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음

□ 2014년 10월 고용보조지표

- 통계청은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포함하여 발표함
- 통계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 외에도 일하길 희망해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작년 10월 새로운 국제기준을 마련했”는데, 통계청은 이 기준을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만들었다고 함¹⁾

- 새로운 고용지표는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기존의 공식 실업률 산정에 활용되었던 실업 기준을 완화해 현실의 실업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지표라 할 수 있음

- 고용보조지표1은 기존의 실업자(85만 8천 명)에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31만 3천 명)를 합한 인원을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으로, 2014년 10월 현재 **4.4%**로 나타남

$$\ast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고용보조지표2는 기존 실업자에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 (170만 4천 명)을 합한 인원을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2014년 10월 현재 **9.0%**로 나타남

$$\ast \frac{\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고용보조지표3은 기존의 실업자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인원을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2014년 10월 현재 **10.1%**로 나타남

$$\ast \frac{\text{실업자} + \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고용보조지표3은 ‘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 과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실업자를 합한, 광의의 실업 개념을 이용한 현실의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나 된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공식 실업률 3.2%와 큰 차이를 보임

1) 연합뉴스 2014년 11월 12일 “체감실업률 10%…실업자 포함 취업희망자 287만명” 기사 참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표 1. 공식실업률 및 고용보조지표 추이 (단위 : %)

	2014. 5	2014. 6	2014. 7	2014. 8	2014. 9	2014.10
공식 실업률	3.6	3.5	3.4	3.3	3.2	3.2
고용보조지표1	4.5	4.7	4.7	4.6	4.4	4.4
고용보조지표2	9.4	9.3	9.4	9.5	9.3	9.0
고용보조지표3	10.3	10.4	10.7	10.6	10.4	10.1

※ 출처 : 통계청 2014년 10월 고용동향

□ 새로운 고용보조지표의 의의 및 앞으로의 활용

-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는 보다 포괄적인 실업 개념을 이용해 기존 실업률이 직면했던, 현실의 실업문제를 과소평가하게 한다는 비판을 해결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음. 이전에도 체감실업률이나 사실상의 실업률과 같은 용어를 쓰며 이와 같은 광의의 실업률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왔었음
-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해 청년고용문제 등과 같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용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이미 U-1~U-6에 이르는, 6개의 실업통계를 발표해왔음(이 중 U-3이 공식실업률에 해당됨). 통계청의 최근 발표는 U-4~U-6와 비교될 수 있는데, U-1에 해당되는 장기실업자의 비중과 U-2에 해당되는 실직자나 곧 실직에 처할 수 있는 임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통계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고용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통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통계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기존 실업통계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성별에 따른 자세한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앞으로 더욱 개선된 통계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11월 13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리발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리발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강세진,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강세진,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
노동	9/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
복지	10/14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이은경
노동	10/16	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10/20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
복지	10/21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이은경
정치일반	10/30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이상동
주거	11/3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강세진
주거	11/5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강세진
노동	11/13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